

볼리비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볼리비아

I. 일반개황

면적	1,099천 Km ²	GDP	131억 달러(2007년)
인구	9.52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378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공화제)	통화단위	Boliviano(Bs)
대외정책	반미주의	환율(달러당)	7.85(2007년)

- 남미 내륙국가인 볼리비아는 석유, 천연가스, 금, 은, 주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나, 절대빈곤, 소득불평등 등 사회문제가 만연해 있는 남미 최빈국이며, 세계 제3위의 코카생산국이기도 함.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초보적 산업발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의 펀더멘탈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원국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4.2	4.5	4.7	4.6	5.6
재정수지 / GDP	-6.0	-2.7	4.5	1.7	4.1
소비자물가상승률	4.4	5.4	4.3	8.7	14.3

자료 : IFS, EIU

□ 2004년 이후 수출호조로 4~5% 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2001~02년의 저성장에 이어 2003년에도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발효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19%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지속과 로사다 대통령의 사임 등 정국불안 발생으로 2.7% 성장에 그침.
- 2004~05년에는 천연가스 국유화를 요구하는 소요사태 발생으로 카를로스 메사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두 해 연속 4%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6년에도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와 광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4.7%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07년 들어서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의 모국송금 증가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 석유 및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8년에도 천연가스 수출 호조 및 민간소비 증가 추세의 지속으로 5.0% 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미국의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연장 지연, 외국인 투자 감소에 따른 기간산업의 신규투자 위축 등으로 2009년에는 2%대로 성장률이 감소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크게 증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2000년 이후 1~3%의 낮은 수준을 보여 왔으나, 2004년 이후 국제유가의 강세 지속과 연료가격 동결 해제, 정국불안으로 인한 생필품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4.3~5.4%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2007년 들어서도 민간소비 증가와 해외근로자의 모국송금에 따른 국내 유동성 증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7%까지 크게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의 상승, 정국불안으로 인한 생필품 공급 불안정, 정부지출의 증대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3%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9년부터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및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감소 등에 따른 외화유입 감소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 이하 수준으로 하향될 것으로 기대됨.

□ 자원국유화 이후 재정수지 흑자 전환

- 2002년에 GDP의 9.8%에 이르렀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수출호조로 인한 경기회복과 연료보조금 삭감 그리고 정부의 긴축정책 지속으로 2005년에는 GDP의 2.1%로 축소되었음.
- 2006년 5월 1일 천연가스산업 국유화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천연가스관련 정부 재정수입이 급증하여 재정수지도 대규모 흑자로 전환됨.
- * 정부의 에너지관련 재정수입은 2005년에 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함.

- 2007년에는 천연가스 관련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1.7%를 기록함.
- 반면, 2008년에는 천연가스 수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및 정국불안으로 인한 정부지출 지연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4% 대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농업과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나, 기후조건과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

- 볼리비아는 농업이 GDP의 16%, 노동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한 기상조건과 다양한 토질로 발전가능 잠재력이 풍부함. 그러나 기계화 및 투자가 부족하고 기간시설이 취약하여 저개발 상태에 있으며, 기후조건과 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상태임.

□ 자원국유화정책 추진으로 인해 천연가스산업 발전 전망 불투명

-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가로서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천연가스 개발을 전적으로 외국기업에 의존해 왔으나, 2006년 5월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후 외국인투자기업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규투자도 크게 축소되어 향후 천연가스산업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 현재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수출 시장규모는 38백만 입방미터/일인 것으로 추산되며, 아르헨티나의 북동쪽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완공시 추가적으로 20백만 입방미터/일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축소로 2008년 현재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수출 가능량은 32백만 입방미터/일에 불과함.

□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농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양호하나, 자원국유화 정책과 코카재배 등의 문제도 상존

-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의 천연가스(1조 5천 600억^{m³}) 보유 국가이며, 방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과 목축업의 성장잠재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국유화정책과 코카재배 등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임.

* 볼리비아는 세계 코카 생산의 30~40%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코카 생산국이며, 코카재배농민협회 회장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코카재배의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인적자원 부족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볼리비아는 농업과 광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은 큰 것으로 보이나, 2007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가 0.695로 조사대상국 177개국 중 117위로 중남미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등 인적자원 부족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 자원국유화정책 적극 추진

- 2006년 5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한데 이어 주요 광산은 물론 전화와 철도 등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유화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와 신규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됨.

□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으로 경제정책 선회

- 1985년 이후 재정적자 감축, 무역자유화, 금융개혁, 세계개혁, 공공부문 독

점해제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노동자, 농민들의 반발로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었음.

- 특히,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자원국유화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었으며, 거시경제안정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 공공부문 투자에 중점

- 현재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2006~08년간 단행된 일련의 자원국유화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로 천연가스 등 국유화 산업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으로, 자원국유화에 힘입어 재정수입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최근 3년과는 달리, 2009년부터는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338	622	1,317	1,800	1,789
경 상 수 지 / G D P	3.9	6.5	11.5	13.7	10.4
상 품 수 지	421	609	1,242	1,241	1,602
수 출	2,146	2,791	3,875	4,490	6,384
수 입	1,725	2,183	2,632	3,249	4,782
외 환 보 유 액	817	1,277	2,561	4,498	7,864
총 외 채 잔 액	6,097	6,242	4,638	4,771	4,758
총 외 채 잔액 / GDP	69.5	65.4	40.5	36.4	27.7
D. S. R.	18.3	15.2	10.8	8.8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시장개방과 열악한 국내산업으로 인해 생필품, 자본재,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볼리비아-브라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완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됨.
- 특히, 2006년에는 자원국유화조치와 천연가스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각각 12.4억 달러와 13.2억 달러(GDP의 11.5%)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천연가스의 수출단가 인상과 광물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12.4억 달러와 18억 달러(GDP의 13.7%)에 달함.
- 2008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 및 국제 광물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량 증대 및 주요 수출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수출 증가세로 16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반면, 재외 거주 볼리비아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 감소로 2008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18억 달러)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0.4%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 현재 스페인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인접국에 거주하는 볼리비아인이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모국 송금액은 볼리비아 전체 수출액의 20~30% 정도 수준으로 볼리비아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크게 기여함.

□ 외채구조 양호

- HIPC 수혜에 이어 다자간외채감축구상(MDRI)에 따라 2006년에는 IMF,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의 채무 1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 받게 되어 외채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 2007년 말 현재 외채규모는 GDP의 36.4%인 48억 달러로 다소 과중한 편이나, D.S.R.은 8.8%로 낮은 편이며, 단기외채의 비중이 작아 외채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요구 시위 발생으로 대통령 연이어 사임하는 등 정국불안 지속

- 1825년 독립 이래 156년간 193회의 군부반란 및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1985년 이후 군부의 정치개입이 중단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왔으나, 천연가스산업 국유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연이어 사임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 2002년 8월에 집권한 친미 기업가 출신의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칠레를 통한 천연가스 수출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2003년 10월 전격 사임하였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역사학자 출신의 카를로스 메사 부통령도 천연가스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발하여 사임한 바 있음. 이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음.

□ 에보 모랄레스 정부 출범

- 2005년 12월 18일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천연가스산업 국유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후보가 54%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 2006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함.
- 볼리비아의 체 게바라로 불리는 모랄레스는 코카재배농민협회 회장 출신으로서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등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천연가스산업 국유화조치 단행

- 2006년 5월 1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국내 주요 유전지대에 공병대를 투입하여 유전 통제권을 접수함.

- 모랄레스 대통령은 “외국 회사를 추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볼리비아에서 예전처럼 많은 이익을 챙기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한편, 광업과 임업 자원의 국유화와 토지분배 그리고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반정부 세력과의 충돌로 정국 혼란 지속**

-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의 자원국유화 및 부의 재분배 정책 방향에 대한 야당 및 부유층의 반발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등의 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며, 2008년 5월 주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 이를 통과시킴.

*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 쿠데타’,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권력장악 음모’라 칭하며, 강하게 비난

- 2008년 9월에는 야권과 친정부 세력간의 충돌로 반정부 세력이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등 내전을 방불케하는 유혈사태가 발생, 19명이 사망하며 정국 혼란이 지속됨.

□ **2009년 1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예정**

- 2007년 12월 여당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원주민 권익향상, 에너지 산업 국유화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야당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으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함.
-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그동안 야권의 강한 반발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2008년 10월 의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2009년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이에 대해 야권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양 세력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2009년 1월 국민투표 실시 이후에도 정국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임.

□ 반미좌파동맹에 적극 가담

-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단속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왔으나, 모랄레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쿠바-에콰도르-볼리비아로 이어지는 남미의 반미좌파동맹에 적극 가담하고 있음.

* 2008년 9월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 대해 야당 보수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외 퇴거를 요구함.

- 브라질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 이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천연가스 국유화와 가스수출 가격 분쟁 이외에도 브라질이 볼리비아 접경지역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한 볼리비아의 반발 등으로 외교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계층, 인종, 지역간 갈등요인 상존

- 천연가스, 아연, 대두 등 볼리비아 주력수출상품의 생산지이며 부유한 3개주(코차밤바, 산타 크루스, 라파스)와 나머지 낙후된 6개주 사이의 지역갈등 및 볼리비아의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 및 메스티조와 가난한 인디오간의 인종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수도 라파스와 산타 크루스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계층간, 지역간 갈등에 따른 정치성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S&P : B-
- o Moody's : B3
- o Fitch : B-
- o OECD : 7등급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o US EXIM : 인수 불가
- o ECGD : 단기 인수, 중기 제한적 인수
- o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HIPC 수혜국으로 외채부담 경감

- 1980년대 이후 공적채무 7회, 상업채무 5회의 채무재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수차례의 외채위기를 경험한 HIPC 국가임.
-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규차입 및 기존채무의 리스케줄링과 1998년에 HIPC 외채경감계획에 따라 7억 6,000만 달러의 공공채무탕감을 받음.
- 또한 2000년 2월 Enhanced HIPC 수혜를 위한 심의시점을 통과한데 이어, 2001년 6월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 8억 5,400만 달러(현가기준)가 추가 탕감되었음.
- 세계 최빈국 18개 국가의 국제기구 부채 약 400억 달러를 완전 탕감해주는 다자기구외채탕감구상(MDRI)에 따라 2006년에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외채 약 1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 받음.

□ 모랄레스 정부와 채권단의 긴장관계 형성

- 국제금융기관 및 파리클럽과의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금융 기관들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고 외채상환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 출범 이후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제기구와의 관계도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EU 국가 중 볼리비아 천연가스 시장에 가장 많이 투자(10억 달러)한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이 진행 중인 볼리비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경협관계는 미미한 수준

-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92백만 달러(수출 10백만 달러, 수입 182백만 달러)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2008년 9월 말 기준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9건 61,193천 달러임.

□ EDCF 지원사업 1건 진행중

- 교량건설사업 승인액 : 23백만달러

V. 종합 의견

- 2006년 5월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 이후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4~5% 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자원국유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국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반전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 모랄레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 반하는 반정부세력과의 잦은 충돌과, 국유화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2009년 1월)되어 있어 당분간 정국 불안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적으로도 지역 및 인종간 빈부격차, 치안불안, 마약문제 등이 심각하여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볼리비아는 외채, D.S.R. 외환보유액 등 대부분 유동성 지표들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신용등급이 줄곧 최하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외채상환태도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문의 : 전문연구원 이은경(☎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